

2017

여름 제63권 2호

성서한국

THE KOREAN BIBLE SOCIETY NEWS



모잠비크



(재)대한성서공회

더 알고 보면 재미있고 놀라운 성경의 세계

미국성서공회

"The Amazing Bible Factbook for Kids" 한국어판



여름성경학교 자료로 강력추천!

- 주제별로 재미있게 풀어가는 성경 시대의 역사, 문화, 인물 이야기
- 성경 이해의 기초가 되는 흥미로운 지식과 퀴즈 수록
- 사진, 그림, 지도, 표 등 생생한 시각 자료(컬러) 다수 수록
- 다양한 서체, 레이아웃을 사용한 지루하지 않은 편집
- 교역자, 주일학교 교사, 자녀를 둔 학부모, 성경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추천!

- 158mm x 237mm (국변형판)
- 256 페이지
- 올컬러
- 정가 : 16,000원



성경 구입 및 상담 문의 대한성서공회 반포부 | 02-2103-8846~8 전국 기독교 서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 02 포토에세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 주셨습니다!
- 04 2017 상반기 성서 사업 보고
- 06 커버스토리_모잠비크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잠비크에 위로와 소망을 전합니다.
- 10 2017 성경 보내기 기증 현황
여러분의 후원으로 76개국에 성경을 보냅니다!
- 12 성서공회 운동을 위한 기도
- 14 성경을 받은 사람들
고맙습니다! 한국 교회와 후원자님!
- 16 후원자 이야기
받은 사랑, 이제는 나누고 싶습니다!
- 18 후원교회
새누리교회(볼리비아), 덕수교회(토고), 주안교회(페루), 서울 강남 지역 4개 교회(쿠바)
- 20 말씀을 만나다
관습과 문화
- 22 대한성서공회 소식
- 24 후원자 참여



- 발행인 겸 편집인 : 권의현
- 발행처 :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 회원문의 : 080-374-3061(수신자 부담), 02-2103-8861~3
- 편집문의 : 02-2103-8855
- 성경구입 및 전도지 문의 : 02-2103-8846~7
- 지로번호 : 7511327
- 발행일 : 2017년 6월 30일
- 인쇄인 : 김현수
- 인쇄처 : 삼립인쇄(주)
- 편집 : 강수현

* <http://www.bskorea.or.kr>
인터넷으로 성경 본문과 성서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설립 목적은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를 번역, 출판, 배포하는 데 있습니다.
본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BS)의 회원국으로서 범세계적인 협조를 통하여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지는 도서잡지 윤리실천 강령을 준수합니다.(비매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 주셨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리보 교도소 문자교실

안타나리보 교도소의 문자교실에 참가한 이 남성은
태어나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글을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그가 써 본 문자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바로 성경 말씀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글을 깨우치니, 어두웠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어두운 눈과 마음을 밝혀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 또 다짐해 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외 성경 보내기 운동에 힘써주신 한국 교회와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권익현 사장

제6차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출판 회의가 지난 3월 20일부터 25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출판 회의에는 전 세계 100개 성서공회에서 230여 명의 대표들이 참가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출판 회의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비텐베르크와 가까운 베를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장벽을 허물고 희망을 가져오라(Breaking Barriers, Bringing Hope)”는 주제로, 다양한 인쇄 출판 개발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구현되는 시대에 성서 출판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본 공회에서는 현재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 인쇄 출판 분야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성경 본문뿐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디

지털 방식으로 준비하면서, 독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89개 나라에 111개 언어로 2,346,203부의 성경을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또 본 공회에서는 세계 성서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계 성서공회연합회에 지원하는 재정적 인적 지원과는 별도로, 성경 제작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성서공회들에 성경을 제작하여 무상으로 기증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총 26개 나라에 239,287부의 성경을 제작하여 기증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가나 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셔스 세네갈 세이셸 스와질란드 에티오피아 짐바브웨 토고 등 13개, 중남미의 니카라과 도미니카 멕시코 볼리비아 서인도제도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칠레 코스타

리카 등 9개, 유럽 중동 지역의 그리스 요르단 등 2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남태평양 대만 등 2개국에 성경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 교회와 찬성회원들께서 해외 성경보내기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헌금을 보내주셔서, 지난해 동기간보다 약 1억 9백여만 원이 증가한 16억 1천 2백여만 원이 답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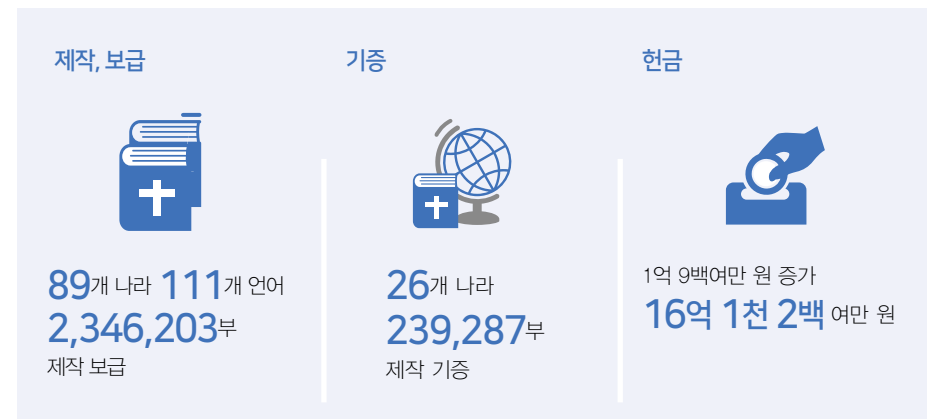
최근에는 중동 지역과 과거 공산권에 속해 있었던 유럽과 중앙아시아 등 복음 선교에 상당한 제약과 핍박이 있는 곳들 가운데, 성경 보급을 통한 선교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집트 키르기스스탄 성서공회 등에서 성경 기증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내전으로 성서 보급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수단 부룬디 등의 아프리카 지역 성서공회들로부터 성경 기증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남수단성서공회에서는 2년 전에 소수민족 언어로 성경 번역을 완료하였으나, 성경 제작을 감당해 줄 후원처를 찾지 못해 최근에 본 공회에 성경 기증을 요청하였습니다. 성경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서공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본 공회에서는 한국 교회와 협력하여 계속해서 미자립성서공회에 성경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에 성경을 보내는 운동을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참여해주시는 후원 교회와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이 내용은 대한성서공회 제127회 정기이사회에서 보고한 것을 정리 요약한 것입니다.

▶ 한눈에 보는 2017 상반기 성서 사업 보고





성경을 받고 기뻐하는 모잠비크 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잠비크에 위로와 소망을 전합니다.

아프리카 남동부 해협에 위치한 나라, 모잠비크는 지난 1975년, 약 10년간의 자유 투쟁 끝에 500년 만에 포르투갈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하였다. 하지만 이듬해 일어난 부족간의 내전이 16년 동안 지속되면서 약 백만 명의 모잠비크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1992년 평화협정이 맺어진 이후 평화로운 시기가 있었지만 2013년 내전이 다시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안전한 지역을 찾아 떠나는 등 대규모의 이동이 계속되고 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임시 캠프 등을 전전하며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내전에 불안해하고 있다.**

내전과 빈곤

독립 당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모잠비크는 내전으로 경제가 파괴되고 마을이 황폐화되었다. 게다가 홍수와 가뭄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악조건 속에 **국민의 80%를 차지하는 농민들은 자연재해로 인해 가난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모잠비크의 계속된 불안정한 사회 여건으로 교육 시스템도 제대로 자리잡지 못해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고 싶어도 다닐 학교와 가르침을 줄 교사가 없어 공부를 할 수 없다. 그 결과 인구 전체의 문맹률이 약 52%에 이른다.

교회의 성장, 성경의 필요

독립 후 세워진 지도층이 공산주의 정책을 취함에 따라 교회는 오랜 시간 탄압받았다. 그러나 1990년대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면서 모잠비크 교회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성장과 내실화를 지원할 다양한 모국어 성경의 부재다.** 현재 모잠비크 공식어는 포르투갈어지만 인구의 절반만이 포르투갈어를 구사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는 약 41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모잠비크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 성경이 번역되면 자기 부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급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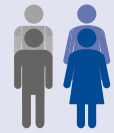
위치 아프리카 남동부 해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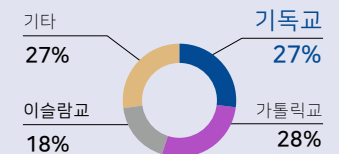
언어 포르투갈어 외 41개



인구 약 2,650만 명



종교





모잠비크 기증 성경 반포 현장



목회자의 토속신앙화

모잠비크 교회는 성장하고 있지만 열악한 사회 여건으로 신학교육을 받지 못한 목회자가 많다. 대부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은 있지만 그들의 **일상으로 된 성경이 없어서 교리를 잘못 이해하거나 기독교를 토속 종교와 혼합시키는 문제를 보이곤 한다.** 그리하여 이들은 종종 스스로 터득한 일반 지식을 사용하여 과장되거나 잘못된 설교를 하고 있다. 이슬람 또한 현재는 18%에 불과하지만 공격적인 포교활동으로 나라 전역을 위협하고 있어, 모잠비크 교회를 위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난민에게 성경 제공

내전이 길어지면서 삶의 터전을 떠나 안전한 곳을 찾아 헤매는 많은 모잠비크 사람들이 임시 캠프 등을 전전하고 있다. 피난 당시 생활 물품들을 모두 두고 떠난 **난민들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는 비영리단체들이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줄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곳은 성서공회뿐이다.** 모잠비크성서공회는 성경을 기초로 한 자료들로 지역 교사와 교회와 공동체 지도자들을 교육하여, 이 어려운 상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여성과 어린이들을 상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회와 청소년

모잠비크 인구의 대부분은 25세 이하의 젊은이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열악한 사회 여건으로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여 성경을 접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소외된 계층이다. **모잠비크성서공회는 목회자, 설교자 그리고 평신도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성경자료를 제공하여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더 집중하게 함으로써 말씀 교육을 통해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자라나갈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 번 홍수로 한 목사님이 갖고 있던 성경을 포함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설교를 하려면 말씀이 필요한데, 성경책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동료 목사님에게 연락해 문자로 성경 구절을 받아서 한 주 한 주 설교를 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우리는 그분을 찾아가 성경을 기증하였습니다. 목사님은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 성경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 모두를 위한 성경이라며, 성경이 필요할 적시에 기증해주어서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모잠비크 성서공회 총무)

모잠비크성서공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한 영혼을 위하여 불안정한 국내 사역 환경 가운데에서도 성경 보급에 힘쓰고 있다. 기증 성경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다시 새로운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것이다.🌐



모잠비크 청소년 성경교실



♥ 후원문의 ♥

모잠비크에 전달하는 컨테이너 한 대에는 **10,000원**의 성경이 들어갑니다. 매월 **10만 원**이면 **20명**, **1만 원**이면 **2명**의 모잠비크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모잠비크에 보내는 성경 컨테이너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후원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080 - 374 - 3061(수신자 부담),
02 - 2103 - 8861~3

여러분의 후원으로 76개 국에 성경을 보냅니다!

* 붉은 글씨 - 지금까지 성경이 발송된 국가
(2017. 05. 23 기준)

아프리카 지역
32개국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수단
니제르, 라이베리아,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세이셸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유럽 중동 지역
15개국

그리스, 러시아,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아랍-이스라엘, 에스토니아,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집트
키르기스스탄, 키르키스스탄, 터키
팔레스타인, 폴란드

아시아 태평양
지역 10개국

남태평양, 네팔, 대만
라오스, 몽골,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중남미 지역
19개국

과테말라,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제도와 아루바,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동카리브, 멕시코
볼리비아, 서인도제도,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쿠바
파라과이, 페루



대한성서공회 조판 서비스 현황 (2017년 상반기)

금년 상반기 성경 제작을 위한 성경 조판 서비스 13개를 무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아프리카 _ 기즈 신약(에티오피아), 마장 신약(에티오피아), 음바이 성경(차드), 영어 청소년용 해설 성경(나이지리아),
트위아잔테 성경(가나), 트위아쿠아팜 성경(가나),

유럽 _ 그리스 신약(그리스), 슬로베니아 성경(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헝가리 대조 신약(헝가리)

아시아 _ 드레케이-중국 대조 성경(대만)

기타 _ 어린이 그림 성경(불어), 어린이 그림 성경(스페인어), 어린이 그림 성경(영어)

여러분의 후원으로 금년 상반기에는 총 **26개국에 239,287부의 성경**을 제작하여 기증하였습니다. 기증 받은 성경으로 온 누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해외 성서공회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요르단

청소년들이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요르단의 청소년들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 본 적이 없어 작은 유혹과 흔들림에도 쉽게 넘어가 기독교에서 떠나거나 개종합니다. 요르단성서공회는 청소년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자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요르단 청소년들이 성경을 통해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삶속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미비아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나미비아성서공회는 나미비아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가운데 특히 대두되고 있는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전문적인 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숙련된 전문가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협력하여 트라우마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하고, 말씀을 통해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니카라과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는 여성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니카라과의 15세 이상 49세 미만의 여성들 중 11%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정 내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과,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니카라과성서공회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450여 명의 지도자들을 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120여 개의 교회와 협력하여 성경 보급 및 말씀 공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니카라과의 상처 입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를 품어 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볼리비아

가정이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볼리비아에는 가정에 의한 폭력, 부부간의 불신과 무관심, 무시 등으로 불화를 겪고 있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성서공회는 젊은 부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그 말씀을 통해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특히 가정의 역할을 맡고 있는 남성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여, 이들이 더욱더 말씀을 통해 거듭날 수 있도록 도우며, 지혜롭게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볼리비아의 가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남태평양

말씀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남태평양의 전체 인구 중 대다수는 청소년층이며,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태평양 지역엔 여러 민족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문화와 환경이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문화에 익숙한 청소년들은 새로운 것에 흥미를 느끼며 성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남태평양성서공회는 청소년 세대들을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성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과 흥미를 심어줄 수 있는 그림 자료와 말씀 이야기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이 성경과 친해져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교회와 후원자님!

해외 성경 보내기 후원회원들과 한국 교회의 후원으로 성경을 받은 해외 성서공회에서 감사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받고, 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는 해외 성서공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차드

차드를 늘 기억해 주시는 한국의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차드는 부족어 성경의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문제로 성경 제작을 할 수가 없었는데, 성경을 기증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매년 기증해주시는 불어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차드성서공회 역시 이 성경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사역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인해 매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차드의 온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남수단



최근 남수단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거주하는 카툰 지역에 성경을 많이 반포하였습니다. 과거 이 지역 사람들은 무슬림이었지만, 현재는 기독교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성경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경 보급 사역을 통해 현재 창고에 있는 성경을 거의 다 반포한 상황입니다. 작년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성경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한국의 후원자님들과 교회들의 사랑으로 창고에 성경을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도하며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의 주요 종교는 가톨릭이지만, 개신교 교회들의 성경 요청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공산주의의 영향으로 공산 정권이 50년간 통치하였기 때문에 유럽 다른 나라들보다 성경에 대한 갈급함이 더욱 큼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경을 반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성경을 더 가까이하고, 규칙적으로 읽도록 하기 위해 여러 교단들과 함께 사역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일학교와 성경 공부 모임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최근 많은 교회들이 성경 연속 읽기 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크로아티아성서공회가 함께 사역하는 보스니아 지역의 인구 절반은 무슬림이고, 나머지는 다양한 기독교 교단 소속 교인들입니다. 우리는 무슬림들을 위한 선교 사역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모든 기독교 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점점 이슬람교에서 개종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르완다

르완다성서공회는 학생들을 위한 성경 보급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증해주신 성경을 중학교 학생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성경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말씀에 갈급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르완다의 많은 학교에는 성경 한 권을 살 수 없고, 생활 조차 불안정한 고아들이 많습니다. 학교와 교회들을 방문할 때면 사람들이 성경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곤 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 보급 사역을 진행하면서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 땅, 의심과 두려움뿐 고통에 매여 있는 죽어가는 저들에게 주님의 생명 심어지길 기도합니다.”

—언더우드의 기도 중에서—

받은 사랑, 이제는 나누고 싶습니다!

100여 년 전, 해외의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이 땅에 복음이 심어졌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100년 전 우리와 같은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비록 직접 나가서 전하진 못하지만 해외 성경 보내기 운동에 동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후원자들의 이야기를 담아 보았습니다.



이*배 후원자님

성경이 없는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낼 수 있다는 자체가 매우 뜻 깊은 일입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미약하지만 제 작은 도움으로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된 성경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위를 보면 성경 보내기 운동을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처럼 좋은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명

저희 가족은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잠시 떨어져 지내며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저는 슬플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생활을 이어왔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축복해주셨습니다. 예전부터 성경 보내기 운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얼마 전부터 후원을 시작하였는데, 제 남편이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성경을 받게 된 사람들 모두 제 남편처럼 변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명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대한성서교회 위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부 보조금을 받고 생활을 하고 있어서 형편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더 후원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적은 금액이지만 형편이 되는 대로 변치 않고 꾸준히 후원에 동참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탁 후원자님

교회에 방문하신 성서교회 장로님을 통해 해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후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비록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처럼 뜻 깊은 해외 성경 보내기 운동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금액을 후원하고 싶습니다. 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섬기고 싶습니다.

새누리교회(볼리비아), 덕수교회(토고), 주안교회(페루), 서울 강남지역 4개 교회(쿠바)

무너진 볼리비아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웠습니다!!

- 스페인어 성경 5,596부



3월 23일, 대한성서공회 후원회원들과 새누리교회(김민석 목사)의 후원으로 볼리비아에 스페인어 성경을 보냈습니다. 새누리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마련된 아가페 카페를 운영하면서 얻은 1년 수익금 약 500여 만 원을 해외 성경 보내기 운동을 위해 본 공회에 보내왔고, 대한성서공회 후원회원들의 후원이 더해져서 볼리비아에 성경을 기증하였습니다.

성경으로 토고에 생명의 빛을 밝혔습니다!

- 불어 성경 9,016부



4월 18일, 덕수교회(김만준 목사)의 후원(2천만 원)으로 토고에 불어 성경을 기증하였습니다. 김만준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경입니다. 인간이 바라는 모든 것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으며, 성경은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온전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받게 될 수많은 토고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길 소망하였습니다.

가정폭력과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페루 여성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했습니다! - 스페인어 성경 44,720부



6월 1일, 주안교회(주승중 목사)의 후원으로 페루에 스페인어 성경을 보냈습니다. 기증식에 참석한 주안교회 성도들은 보내는 성경이 가정폭력으로 상처받고, 극심한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무사히 전달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기증된 성경은 성경 기반 치유 프로그램과 어린이 성경공부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4개 교회가 연합하여 쿠바에 4천여 개의 작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 큰 글자 스페인어 성경 4,608부



6월 1일, 강남동산교회(고형진 목사), 영동교회(정종희 목사), 온누리교회(조용선 목사), 초원교회(김성남 목사)의 후원으로 쿠바에 큰 글자 스페인어 성경을 보냈습니다. 남미 유일의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의 기독교인은 지난 10년 동안 세 배 이상 성장하여, 현재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증한 성경은 7월 말 경에 쿠바에 도착하여 쿠바성서위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

관습과 문화

고대 중동의 예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갑자기 3천 년 전의 고대 이스라엘로 가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손님이 여러분의 천막에 찾아왔어요. 여러분은 손님 대접을 잘 하고 싶을 거예요. 다음 안내를 따라서 하면 된답니다.



생활 관습:

말이 없는 사막의 '목동'

고대 중동의 많은 유목민은 양을 치고 소를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동물에 의존해서 살았고, 가축이 풀을 뜯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했어요. 이렇게 동물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흥미로운 현대 관습이 생겨났어요.

알고 있었나요?

단색의 양 두 마리가 줄무늬가 있거나 점박이 무늬가 있는 가지 앞에서 짹짹 입을 벌려 얼룩덜룩하거나 점박이 무늬가 있는 새끼를 낳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라반(리브가의 오빠)과 그 친척인 야곱은 서로를 속이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라반은 야곱에게 얼룩덜룩한 양과 점 있는 양을 월급으로 가져가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찾아보니 그런 양이 없었어요. 야곱은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는 옛날 방식대로 해 보았어요. 기쁘게도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야곱은 점 있는 양이 많이 생겨서 부자가 되었어요! (창세기 30:25-43을 보세요.)

* 손님이 친척이면 양쪽 볼에 입을 맞추며 환영해요(출애굽기 4:27).

* 손님에게 얼른 마실 물을 주어요. 사막의 열기로 목이 마를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창세기 24:13-14; 요한복음 4:6-8).

* 손님의 낙타들에게도 꼭 물을 주어요 (창세기 24:19-20). 낙타는 하루에 물을 95리터까지도 마시는데, 우물에서 물을 길올 때 쓰는 물동이는 11리터 들어있어요.

* 잘 기른 통통한 송아지 한 마리를 고르고 그것으로 식사 준비를 해요. 이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열심히 일해야 하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지요(창세기 18:7).

* 그동안 물과 수건을 가져다가 손님의 발에 묻은 진흙과 먼지를 씻어요. 그리고 천막의 그늘에서 편히 쉴 수 있게 해요 (창세기 18:4).

* 손님과 동물이 잘 수 있는 곳을 준비해요 (창세기 24:31-32).

식사 관습: 예절 바르게 해야죠!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것은 이스라엘의 삶과 문화의 큰 일부였어요. 누군가와 음식을 먹는 것은, "당신은 내 친구예요." 또는 "나는 당신과 일하고 싶어요." 하고 말하는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페르시아의 에스터 왕비는 왕에게 어떤 관리에 관해 이야기해 주려고 공식 식사인 잔치 자리를 마련했어요. 하만이라는 관리가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거든요. 에스터는 그 사실을 말해 주려고 잔치의 둘째 날 밤까지 기다렸어요(에스터 5:4-8; 7:1-6).

고대에는 다른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식사 대접을 받는다는 뜻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해 규정이 엄격했기 때문에 외국인과 친구가 되기 어려웠어요. 만일 친구가 되면 서로 함께 음식을 먹어야 하고, 그것은 모세의 법에서 금지하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계약을 맺는 관습:

약속을 깨면 다리를 꺾거나 그보다 더한 일을 해도 돼요!

우리는 우리가 한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맹세할게!" 하고 말하지요. 성경 시대에는 맹세한다는 말은 계약을 맺을 때 했어요(민수기 30:2; 마태복음 5:33-37). 맹세는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맹세를 하거나 계약을 맺는 방법이 많았어요.

그 중 하나는 신을 벗어나서 약속을 하는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었어요.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는 표시였어요.

계약을 맺는 또 다른 방법은 동물을 반으로 갈라 그 사이를 걷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이런 뜻이었을 거예요. "내가 이 계약을 어기면 나에게 이런 일 또는 이보다 나쁜 일이 일어 나게 하소서."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후에 아브라함은 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숫양 한 마리를 반으로 갈랐어요. 하나님은 연기와 불로 나타나셔서 반을 가른 두 부분 사이로 지나가셨어요(창세기 15:9-21).

룻기에서 보아스는 나옴의 죽은 남편이 가졌던 땅을 도로 사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나옴은 룻의 시어머니였어요.)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지만 보아스가 나선 거예요. 그 친척이 보아스에게 자기 신을 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 친척은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인정했어요(룻기 4:7-8). 이 풍습은 신발로 그 땅을 걸어도 닦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신은 그 땅에 대한 '움직이는 땅문서'였던 거예요.



제127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다



제127회 정기이사회 전경

본 공회 제127회 정기이사회가 2017년 5월 16일(화), 오전 10시 30분에 서초 성서회관에서 개최되었다. 1부 기도회에서는 박종화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경동교회)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

2부 회무처리에서는 신 이사 중 교단 대표로 장만희 사관(구세군대한본영), 김상현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이영훈 목사(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양병희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가 소개되고, 찬성회원 대표로 김순권 목사, 김동권 목사, 문희수 목사, 이선균 목사, 김광년 장로가, 감사로는 송영훈 장로가 소개되었다. 이어서 권의현 사장의 사장보고와 사업보고가 있었다.

안전으로는 교단대표로 김철환 목사(기독교한국루터회)의 이사 선임이 있었다. 신 임원으로 이사장에 이용호 목사,

부이사장에 김현배 목사, 서기에 김정원 목사, 회계에 이선균 목사가 선임되었고, 실행위원에는 김순권 목사, 손인웅 목사, 정하봉 목사, 김동권 목사, 이정익 목사, 우창준 목사가 선임되었다.🌐



신임 이사장 이용호 목사

전 세계 성서가 3,225개의 언어로 번역되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 UBS)에서 발표한 ‘2016 세계 성서 번역 현황 보고서(Global Scripture Access Report 2016)’에 따르면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최소한 단편(쪽복음)이라도 번역된 언어의 수가 총 3,225개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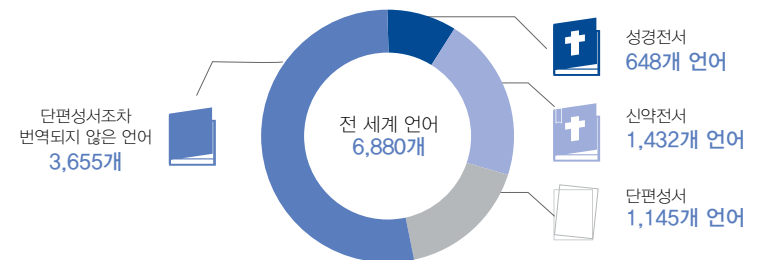
전 세계 6,880개의 언어 중에 648개의 언어로 성경전서 번역이 완료되었고, 신약전서는 1,432개, 단편(쪽복음)은 1,145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특히 2016년은 약 9천 5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30개 언어의 첫 번역이 이루어진 해로, 이 중 첫 번역 성경전서는 17개, 신약전서는 6개, 단편(쪽복음)은 7개에 이른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현재 400개 이상의 번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더욱 쉽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존 번역본을 개정하고, 새로운 번역을 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2016년 기준 28개의 새로운 번역본 및 개정본과 3개의 해설 성경이 출간되었다.

첫 번역이 된 648개의 언어 중 본 공회는 카메룬의 무스굼어(Musgum), 캅시키어(Kapsiki)의 첫 번역 성경 조판을 진행하였다. 특히 우간다의 루마사바어(Lumasaaba) 성경은 대한성서공회 후원회원과 한국 교회의 후원으로 제작 및 출판되었고, 5,100부의 성경이 기증되었다.🌐

2016 세계 성서 번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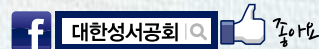
출처: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세계 성서 번역 현황 보고서 (2016.12.31 기준)

우리 함께 해요!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6)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구촌 이웃들을 위해 성경을
후원해주신 후원자님!
이제 SNS를 통해 더 자주 만나요!



대한성서공회 Bible a Month Club 페이스북에서는
매일 성경 읽기, 대한성서공회가 전하는 다양한
지구촌 소식 등 다양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며 성경을 전하는 삶, 함께 해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대한성서공회를 찾아주세요!
(www.facebook.com/koreanbiblesociety)



‘성경 보내기’ 후원회원 신청서

신청인	교회명		교회직분	
휴대전화	집전화			
주소				
약정금액	☐ 매월 100,000원(성경 20권)	이메일주소	☐ 소식지 이메일 요청	
	☐ 매월 50,000원(성경 10권)	이체일	☐ 매월 5일 ☐ 매월 15일 ☐ 매월 25일 (전고부족 등의 이유로 미출금시 2회에 한해 재출금 됩니다.)	
	☐ 매월 20,000원(성경 4권)	은행명	계좌번호	
	☐ 매월 10,000원(성경 2권)	예금주명	예금주 휴대전화	
	☐ 매월 5,000원(성경 1권)	예금주 생년월일	※주민등록증 상의 생년월일 (법인인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매월 원(성경 권)				

신청인(예금주)은 대한성서공회의 선교사업에 후원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효성에프엠에스(주)의 CMS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자동이체를 위해 동의함에 체크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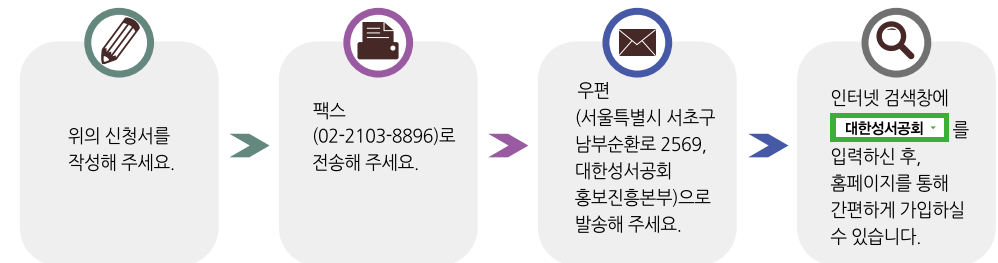
신청인: _____ (인 또는 서명)
예금주: _____ (인 또는 서명)
년 월 일

매월 전하는 성경,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 꼭 확인해주세요!

1.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번호에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정보만 수집합니다.
2. 자동이체 등록시, 효성에프엠에스(전자결제 서비스 제공 기관)와 금융기관에서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예금주[납부자]의 연락처 확인 불가 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3.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제3자): 효성에프엠에스(주), 금융기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efnc.co.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바뀝니다.
‘성서한국’을 e-mail로 받아보시면 발송비용을 절약하여 더 많은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374-3061 (수신자 부담), 02-2103-8861~3



여러분이 후원하시는 성경은
선교의 핍박과 제약이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빛이 됩니다!

전 세계 복음 선교 현장 중에서 공산권, 이슬람권 사회는
선교의 상당한 핍박과 제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며, 복음을 통해 선교사역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성서공회에서 보관하고 있던 성경이 이슬람의 공격으로 훼손되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070-01-0340-570

우리은행 1005-702-311166

수협은행 033-01-085327

KEB 하나은행 630-008603-501
(구.외환은행)

신한은행 140-009-909678

농협은행 355-0025-0990-53

우체국 011916-01-000076

KEB 하나은행 224-910049-47104

▶ 송금 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 대한성서공회)

